

하쿠 산 신앙(白山信仰)과 노(能)의 발생*1)

金賢旭**

(e-mail: hwk33@hotmail.com)

目次

1. 시작하는 말
 2. 호쿠리쿠(北陸) 문화와 하쿠 산 신앙(白山信仰)
 3. 하쿠 산(白山)의 수험문화(修驗文化)
 4. 하쿠 산 신(白山神)과 오키나(翁)
 5. 하쿠 산(白山)의 노멘(能面)
 6. 끝내는 말
-

1. 시작하는 말

신토(神道)의 세계에 있어서 신(神)은 다양한 모습을 빌어 인간 앞에 나타난다. 신들이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관념은 중세로 내려오면서 확대되었고, 현세에 시현한 신의 모습은 인간, 동물, 괴수 등으로 다양하게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신이 노인의 모습으로 시현한다고 하는 예는 중세에 이르러 빈번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중세 신토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을 빌어 나타나는 신을 ‘오키나(翁)’¹⁾ 혹은 ‘오키나 신(翁神)’이라고 하며, 오키나 신을 숭배하는 것이 오키나 신앙(翁信仰)이다. 중세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B00494).

**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대우강사

1) 일본 중세 예능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오키나(翁)’라는 용어는 오키나 신(翁神)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의 오키나 신앙은 예능(芸能)의 세계와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인 노(能) 퍼포먼스가 오키나 신앙을 중심으로 성립한 오키나사루가쿠(翁猿樂)에서 유래했으며, 예능을 짊어 져온 집단들은 오키나 신을 예능의 신으로서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오키나 사루가쿠라는 극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노 후미오(天野文雄)씨가 『오키나사루가쿠 연구(翁猿樂研究)』(和泉書院)라는 저서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많은 의문이 풀리기는 했지만, 극의 성립배경이 된 오키나 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오키나사루가쿠는 오키나 신이 등장하여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제의적인 퍼포먼스인 만큼 오키나 신에 대한 유래를 밝히는 연구 없이는 오키나사루가쿠의 성립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오키나 신에 관한 연구로는 야마오리 데츠오(山折哲雄)씨의 『신과 오키나의 민속학(神と翁の民俗学)』(講談社學術文庫)이 유일하다. 야마오리 씨는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등장하는 오키나 신들을 망라하여 산신, 바다신, 인간에 가까운 신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의 오키나 연구는 오키나 신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 만하지만, 도래문화라는 시점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루가쿠와 관련된 예능의 신으로서의 오키나에 대해서도 전혀 논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오키나 신으로는 하치만 신(八幡神), 이나리 신(稻荷神), 마츠오 신(松尾神), 마타라 신(摩多羅神), 시라히게 신(白鬚神), 세키잔 신(赤山神), 시라기 명신(新羅明神)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중세에 출현한 오키나 신의 대부분이 도래 씨족에 의해 숭배되어 왔거나, 대륙으로부터 건너 왔다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에 도래문화와의 교류 속에서 오키나 신앙의 성립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도래 계 오키나 신에 관해서는 하타 씨족(秦氏族)의 제의, 또는 중세의 산악 신앙과 관련시켜 고찰함으로써 오키나 신앙의 성립과정에는 고대 한반도로부터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논한 바 있지만,²⁾ 여기에는 대륙과의 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했을 호쿠리쿠(北陸) 지방의 산악신앙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었다. 오키나 사루가쿠에 등장하는 주술적인 오키나 신의 유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중세에 산악 수험도(修驗道)³⁾가 발전하면서 주목받게 된 산신(山神)과의 관련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일본에 있어서 대표적인 수험도의 명산으로 일컬어지는 하쿠 산 지역을 빠트릴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하쿠 산 지역에는 사루가쿠(猿樂) 연희집단이 신체(神体)로서 숭배해 왔으며, 주

2) 拙著(2008) 『翁信仰の生成—渡来文化と中世の神々』, 思文閣

3) 수험도는 일본의 전통적인 산악숭배 사상과 불교·도교 등과 같은 외래의 종교문화가 습합되어 형성되었다.

술적인 오키나 사루가쿠의 연회에서 사용했던 오키나멘(翁面)이 다수 남아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흥미롭다.

본고는 하쿠 산의 신앙 및 하쿠 산 신앙을 배경으로 성립한 예능의 역사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대륙과의 문화교류가 활발했던 호쿠리쿠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살핌으로써 이제까지의 하쿠 산 신앙의 연구사에서 결여되어 있었던 도래문화의 시점을 보완하고, 하쿠 산 신앙의 특징과 하쿠 산에 있어서의 오키나 신앙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하쿠 산을 성지(聖地)로 하는 에치젠사루가쿠(越前猿樂)의 발생과 이 지역에 남아있는 오키나멘의 역사를 살핌으로서, 아직 해명되지 않은 오키나사루가쿠의 성립과 오키나 신앙과의 관련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호쿠리쿠(北陸) 문화와 하쿠 산 신앙(白山信仰)

하쿠 산에 대한 신앙의 특질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하쿠 산이 속해있는 호쿠리쿠(北陸), 또는 ‘에치(越)’의 지역적 특질을 살피는 작업이 중요하다. 호쿠리쿠는 당시 일본에 대륙문화가 유입되던 현관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한반도와의 교통의 교점이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륙으로부터 도래문화의 요소가 하쿠 산 신앙의 성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일본열도와 대륙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길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왔다. 해안 각지는 바다로부터 외래문화가 직접 건너오는 곳이며 물자나 문화의 교류가 번성하였다. 특히 호쿠리쿠 지역은 해류나 바람을 타고 배가 도착하고 물자의 표착이나 사절단의 왕래 등에 의해 대륙의 여러 민족과의 교류가 행해졌다. 『니혼쇼키(日本書紀)』 긴메이 천황(欽明天皇) 31년(570) 4월조에는 고구려선(高句麗船)이 「에치의 해안(越の岸)」에 닿았다고 하는 기록이 보인다.⁴⁾ 그 이후도 비다츠 천황(敏達天皇) 2년(573)과 3년(574), 텐지 천황(天智天皇) 7년(674)에 고구려로부터 사신이 도래(渡來)하였을 때, 에치(越) 해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니혼쇼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 발해와의 교섭도 활발하였다. 고지마 요시다카(小嶋芳孝氏)씨가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35회에 이르는 발해선(渤海船) 도착 중에서 도착지가 판명된 것은 30회이며, 이 중에서 호쿠리쿠와 산인(山陰) 지방이 20회를 차지하고 있다. 호쿠리쿠·산인 지방이 발해선 도착기지였던 것이다. 더욱이 호쿠리쿠에 ‘시

4) 「高麗、路に迷ひて、始めて越の岸に至れり」(본문은 岩波古典文学大系『日本書紀』에서 인용)

라'·'미마나'·'고마' 등의 신명(神名)을 가진 도래계의 신들을 모시는 신사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한반도와의 교류가 깊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주변은 동아시아의 사람들 사이에서 국제교류의 무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호쿠리쿠는 고대부터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독특한 해안문화를 형성해 왔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종교사상의 배경설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거기에는 도래문화와 습합하면서 성립한 이채로운 설화세계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대륙과의 관계를 엿보게 하는 전승이나 대륙문화의 요소를 담고 있는 전승 중 널리 알려진 것 중의 하나가 『니혼쇼키』 스이닌 천황(垂仁天皇) 2년조에 실린 츠누가아라시토(都怒我阿羅斯等) 전승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스진 천황(崇神天皇) 때에 이마에 뿔이 난 사람이 배를 타고 게히우라(筥飯浦)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곳을 「츠누가(角鹿)」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마에 뿔이 난 사람에게 출신을 묻자, 가야국의 왕자라고 한다. 가야국의 왕자가 일본에 도래한 계기는 돌에서 깨어난 남자가 일본으로 도망했기에 그녀를 따라 왔다는 것이다. 이는 『니혼쇼키』의 아메노히보코(天之日矛) 전설과 공통된 모티브를 갖고 있는데, 양쪽 모두 한반도로부터의 도래를 설명하는 것이다.

한편 츠누가아라시토(都怒我阿羅斯等)나 아메노히보코(天之日矛) 전설에는 「살우(殺牛)」에 관한 문제가 깊게 관련되어 있다. 양 전승에서 소의 도살에 관한 언급은 고대한국에 있어서의 '살우의례(殺牛儀禮)'의 존재를 신화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소를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경상북도 지역에서 발견된 금석문(金石文)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즉, 503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영일냉수리신라비(迎日冷水里新羅碑)'(국보 264호)와 524년 것으로 추정되는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국보 242호)이다. 스즈키 히데오(鈴木英夫)씨는 두 비를 소개하고 그 내용 중에 각각 '살우(煞牛)'·'살반우(煞斑牛)'(「煞」는 「殺」의 이체자)라고 쓰여 있어, 소를 도살하는 의례를 기술하는 문자가 새겨져 있으며, 이에 의해 신라에서 '살우의례(殺牛儀禮)'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살우의례'가 일본에도 있었지만, 엔랴쿠 기(延曆期, 782~806)가 되자 금지되었다. 『쇼쿠니혼키(續日本紀)』 엔랴쿠(延曆) 10년(791) 9월의 기록을 보면 「断三伊勢·尾張·近江·美作·若狭·越前·紀伊等国百姓、殺レ牛用祭二漢神一」⁵⁾라고 하여, 각지의 백성이 소를 잡아 가라가미(漢神)를 제사지내는 것을 금한다고 적혀있다. 또, 『루이쥬고쿠시(類聚国史)』 엔랴쿠(延曆) 20년(801) 4월에도 에치젠 지역에 대하여 소를 잡아 신을 제사지내는 것을 금하고 있다.

5) 新日本古典文学大系 『続日本紀』

이러한 기록을 통해 엔랴쿠 기(延曆期)까지는 일본 각지에서 ‘살우의례’가 성행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엔랴쿠 20년(802)에 일찍부터 도래문화가 뿌리를 내린 에치젠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살우제신(殺牛祭神)’ 금령(禁令)이 내려졌다는 것은 호쿠리쿠 지방에 있어서 가라가미 신앙(漢神信仰)이 농후했음을 시사한다. 재앙을 초래하는 역신으로서의 가라가미에 대해서는, 『니혼료이키(日本靈異記)』의 ‘살우제신 설화’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설화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쓰인 것이기는 하지만, 소를 잡아 제사지내는 가라가미 제사(漢神祭?)의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호쿠리쿠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대륙 계 신앙의 흔적을 보면 하쿠 산 신앙에도 대륙 문화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하쿠 산 신앙의 성립에는 고대한반도의 산악신앙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수험도를 비롯한 하쿠 산 신앙의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던 도교는 3,4세기경부터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전래되었던 것에 반해 신라로부터는 산악숭배를 중심으로 한 지신신앙(地神信仰)이 전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신신앙의 전래와 지신신앙이 불교화 되어 지장신앙(地藏信仰)이 된다는 것은 이미 시게마츠 아키히사(重松明久)씨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시게마츠 씨는 또한 신라 계통 문화의 침투지역이라 할 수 있는 호쿠리쿠에는 산악 신비관과 산악 타계관이 침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6) 신라에서 명산·대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은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기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신라의 산악신앙에 관해서는 『삼국사기』(신라조)에 「至牛頭州 望祭太白山 樂浪·帶方兩國歸服」이라는 기록이 보이며, 태백산을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성산(聖山)으로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쿠 산에 있어서도 ‘小白山行事’라든가 ‘白山大御前’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라의 태백산·소백산이라는 이름을 도입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하여는 나카노 반노(中野幡能)씨가 호쿠리쿠의 하쿠 산 신앙이 신라의 태백산·소백산을 둘러싼 단군신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⁷⁾ 하였던 지적을 간과 할 수 없다. 이렇듯 호쿠리쿠의 문화유입의 흐름을 보면 한반도 북부의 성스러운 산인 백두산에 대한 신앙사상이 하쿠 산 신앙(白山信仰)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하쿠 산 신앙에 관한 기록에서는 샘물가에서 타이초의 기도에 의해 아홉 개의 머리가 달린 용(九頭龍)이 나타났다고 하였는데,⁸⁾ 이는 신라에 있어서

6) 重松明久(1985) 『古代国家と道教』 吉川弘文館, 417쪽

7) 中野幡能(2000) 『英彦山の歴史』 『英彦山と九州の修験道』 名著出版, 22쪽

8) 『泰澄和尚伝記』 「爾時池中 示九頭竜玉形」(본문은 『白山史料集』에 실린 『泰澄和尚伝記』에서 인용. 이하 동일)

산천을 제사지내는 종교적 사상과의 영향관계를 상정할 수도 있다. 신라의 산악신앙의 영향으로 에치 지역에 있어서도 용신으로서의 구두용(九頭龍)을 제사지냈던 풍습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쿠산 히메 신(白山比売神)도 원래 구두용신(九頭龍神)으로 나타나 타이초가 진실된 모습을 보이라고 하자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으로 모습을 바꾸었다.⁹⁾ 하쿠산 신이 산신이며 동시에 수신(水神)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군신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큐슈(九州)의 히코산(彦山) 수험도에 있어서의 하쿠산 신앙에는 반드시 텐류 신앙(天龍信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3. 하쿠산(白山)의 수험문화(修驗文化)

‘하쿠산(白山)’은 이시카와(石川), 후쿠이(福井), 기후(岐阜)의 세 개의 현(県)에 걸쳐 있는 산으로 고대부터 신(神)이 사는 ‘영산(靈山)’으로 여겨졌으며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고대 일본의 대표적인 노래집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에는 하쿠산에 대해 노래한 와카(和歌) 두 수가 실려 있는데¹⁰⁾, 그 노래의 내용은 흰 눈으로 덮인 아름다운 산으로 알려진 하쿠산의 절경을 극찬하고 고시노구니(越の国)¹¹⁾로 향하는 친구에 대한 석별의 정을 하쿠산을 향한 동경에 비유해서 읊고 있다. 이처럼 하쿠산은 고시노구니의 명산으로서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8세기 말~12세기 말)에 이미 교토(京都)에서도 그 명성이 알려져 있었다.

헤이안 시대 중기에는 불교와 도교 등의 영향으로 심산에 들어가 수도함으로써 재난과 악령을 쫓는 초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어졌던 수험도(修驗道)가 확산되고 각지의 명산에서는 수행자들에 의해 수도(修道)가 본격화 되었다. 이 수험도의 중심에는 천태종, 진언종의 승려들이 있었으며, 타이초(最澄), 구카이(空海)의 영향으로 밀교(密教)의 승(僧)들도 야마토(大和)의 오오미네산(大峰山), 요시노(吉野)의 긴푸센(金峯山), 쿠마노산잔(熊野三山) 등에서 수행을 하게 되었다. 그 영향은 하쿠산(白山), 다테야마(立山), 하구로산(羽黒山) 등 지방의 신령스러운 산에도 파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수험도가 발전하였다. 이

9) 『泰澄和尚伝記』 「示九頭竜王形 和尚重責曰 此是方便示現 非本地真身焉 乃又十一面觀自在尊 慈悲玉体忽現」

10) 君がゆく こしの白山 しらねども ゆきのまにまに あとをたづねん(藤原兼輔)
よそにのみ 恋ひやわたらん 白山の 雪みるべくも あらぬわが身は(凡河内躬恒)

11) 호쿠리쿠(北陸)의 고칭(古称)

후, 성스러운 하쿠 산의 명성이 교토에도 전해져 문학의 세계에서도 수험도의 대표적인 산의 하나로 기술되어 왔던 것이다.

산악수험도가 활발해 짐에 따라 각지의 영산에서는 교단형성과 함께 포교를 위하여 산신과 불보살(佛菩薩)과의 ‘신불습합(神佛習合)’이 일기 시작했으며, 신사(神社) 경내에 ‘진구지(神宮寺)¹²⁾를 세우거나 사원에서 수호신을 모시는 등의 풍조가 가속화되어 신도(神道)와 불교 교의(教義)가 혼합되기 시작하였다.

하쿠 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쿠 산의 고젠가미네(御前峰), 겐가미네(劍ヶ峰), 오오난지가미네(大汝峯)라 불리는 세 봉오리에는 ‘하쿠산묘리 대보살신(白山妙理大菩薩神)’ ‘오나무치(太男知)’ ‘벳산다이교지(別山大行事)’신이 진좌(鎮座)하며, 이 신들을 각각 ‘십일면관음보살(十一面觀自在菩薩)’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 ‘성관음(聖觀音)’의 스이샤쿠(垂迹)¹³⁾라고 하는 혼지스이샤쿠 설(本地垂迹說)¹⁴⁾이 신앙의 교의(教義)로서 확립되었다. 이 혼지스이샤쿠 설에 의해 하쿠 산 교단(白山教團)의 교의(教義)가 통일됨으로써 하쿠 산 신앙은 보편성을 띠고 수도자·야마부시(山伏)들에 의해 전국각지에 보급되었으며 수많은 신자(信者)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영산으로서의 하쿠 산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도자 뿐 아니라 일반의 참배자들도 기원을 위해 하쿠 산으로 찾아들게 되었다. 이 후, 하쿠 산 히메 신사(白山比咩神社), 헤이센 사(平泉寺), 나가타키 하쿠 산 신사(長瀧白山神社)의 ‘삼바마(三馬場)’는 각기 ‘가가(加賀·현재 石川)’ ‘에치젠(越前·현재 福井)’ ‘미노(美濃·현재 岐阜)’로부터 하쿠 산에 오르는 입구인 동시에 천태종의 거점으로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갔다. 하쿠 산 본궁(本宮)인 하쿠 산 히메 신사를 중심으로 ‘하쿠 산 칠사(白山七社)¹⁵⁾가 정립되어, ‘호쿠리쿠 하쿠 산 신앙권(北陸白山信仰圈)’으로서 큰 세력을 떨치게 되었다. 또한 사찰 헤이센 사를 중심으로 니후 군(丹生郡)의 오오타니 사(大谷寺), 이마다치 군(今立郡)의 오오타키 사(大瀧寺), 사카이 군(坂井郡)의 토요하라 사(豊原寺) 등의 하쿠 산 계통의 사원과 신사가 정립되어, 가가바마(加賀馬場)와 같이 에치젠에 있어서의 하쿠 산 신앙권이 형성되었다. 나가타키 하쿠 산 신사(長瀧白山神社)의 경우도 하쿠 산 중턱의 북부일대의 토지를 기증받아 안정된 재정기반을 확립하고 융성을 이루었다.

12) 신사에 부속되어 지어진 사원을 칭함. 신불습합 사상에 의해 성립.

13) 부처·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신의 모습으로 환생하는 일.

14) 일본의 신의 본원은 불·보살이 중생구제를 위해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설.

15) 白山比咩神社, 金劍宮, 三宮, 岩本宮, 中宮, 佐羅宮, 別宮

4. 하쿠 산 신(白山神)과 오키나(翁)

하쿠 산을 종교수행의 장으로 성립시킨 것은 타이초(泰澄)라는 승려이다. 타이초와 하쿠 산 신앙에 대한 기록 중에서도 사료가치가 높은 『타이초와쇼덴키(泰澄和尚伝記)』(平安中期成立)를 보면 타이초는 682년에 에치젠(越前)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품안으로 백옥이 들어오는 태몽을 꾸 후 타이초를 잉태하였다는 신비스러운 탄생 담이 함께 전해진다. 타이초가 11세가 되었을 때, 당(唐)에서 돌아와 호쿠리쿠(北陸) 지역을 수행하던 승려 도쇼(道照)의 눈에 띄게 되는데, 도쇼는 타이초의 머리 위에 원광이 드리운 것이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기이한 일에 놀랐다¹⁶⁾고 적고 있다.

이렇게 범상치 않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타이초의 수행모습의 단편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越知峯坂本巖屋内入畢 即禮拜數百遍 其聲唱南無十一面觀世音神變不思議者
乃出巖室 拳登越知峯(中略)彼嶺久修練行(中略)三昧坐禪積日無倦修驗暫秘秀 為
世寶呪功早越

타이초가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의 인도 하에 하쿠 산 에치 봉(越知峯) 바위굴에서 수행하며, 주술적인 힘을 얻었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타이초 전기(伝記)의 내용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서 받아드리기에는 문제의 여지가 다분히 존재하지만, 고대인의 산악에 대한 관념이나 불교사상의 도입이 산악신앙의 성립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타이초의 수행승으로서의 신앙내용의 실태에 대해서는 추정이 쉽지는 않다. 시게마츠 아키히사(重松明久)씨는 타이초의 불교적인 입장은 밀교적인 불교와 도교적인 요소를 포함한 산림불교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⁷⁾ 즉, 시게마츠 씨는 시모데 세키요(下出積興)씨가 나라시대에는 민간불교적인 산림불교의 계통이 있었지만 산에서 수행하거나 자유롭게 산에 칩거하며 암좌를 짓는 것을 금하였다고 하였던 지적과 『쇼쿠니혼키(続日本記)』에서 이단을 배우고 환술

16) 『泰澄和尚伝記』「白山行人泰澄和尚者 本名越大徳 神融禪師也 俗姓三神氏 越前国麻生津三神安角二男也 母伊野氏 夢取白玉水精 入懷中乃妊(中略)白鳳二十二年壬午歲六月誕生(省略)入唐歸朝聖人道照和尚 北陸道修行時 來宿安角蓬屋 其時和尚十一歲小童也 道照和尚視此小童 頭現門光 頂有天蓋 道照唯独自見 余人不見 道照和尚驚怪 和尚生年十四也」

17) 重松明久(1985) 『古代國家と道教』 吉川弘文館, 417쪽

을 축적하는 자, 주술을 행하는 자, 불법을 닦고 전수하며 부적을 만드는 자에 대하여 엄히 다스린다는 칙령이 반포된 기록이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여기서 불법이란 이단적인 존재이며 도교의 주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제자 중에도 도교적 내지 샤머니즘적인 수행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타이초는 도교 사상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타이초의 하쿠 산에서의 수행내용을 살펴다보면 예능의 발생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타이초가 하쿠 신의 시현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을 『타이초와쇼덴키』로부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和尚至靈龜二年夢 以天衣瓔珞 身貴女 從虛空紫雲中 透出告曰 我靈感時至 早可來 而日本根子高瑞淨足姬 元正天皇御在位 養老元年丁巳歲 和尚年三十六也 彼年四月一日 和尚來宿白山麓(中略)先日夢 貴女 屢現命和尚言 此地大德悲母生穢非結界 此東林泉 吾遊此地 早可來 言未畢 即隱 和尚驚此告 乃臨彼林泉 日夜放大音聲 禮拜念誦(中略)爰酬祈念 前貴女現告曰 我雖有天嶺 恒遊此林中(中略)和尚今顯靈感奇異 彌仰仏徳掲焉 乃拳登白山天嶺禪定 居縁碧池側 禮念加持一心不亂 猛利強盛(中略)爾時池中 示九頭竜王形 和尚重責曰 此是方便示現 非本地真身焉 乃又十一面觀自在尊慈悲玉体忽現(中略)和尚拳右孤峯 值一奇服老翁 神彩其閑 乃語曰 我是妙理大菩薩神務清謐啓沃輔弼 名曰太己貴(後略)

이상의 기록에 의하면 레이키(靈龜) 2년(716)에 하쿠 산의 신인 ‘귀녀(貴女)’가 꿈속에 시현함을 계기로 타이초는 하쿠 산기슭으로 옮겨왔다. 타이초의 기원으로 한 번 더 귀녀의 시현이 있었고, 드디어 타이초가 하쿠 산의 정상에 올라 일심불란으로 기도하자 바위연못 쪽에서 하쿠 산의 신이 ‘구두용왕(九頭龍王)’의 형상으로 나타났으며, 다시 모습을 바꾸어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으로 시현하였다. 타이초가 우호봉(右孤峰)에 올라가서는 기이한 옷차림의 오키나(翁)를 만났는데, 이름이 오나무치(太己貴) 신이라 하였다. 하쿠 산신은 타이초 앞에 귀녀와 아홉 개의 머리가 달린 용왕으로, 때로는 십일면관음과 오키나 등으로 모습을 바꾸어 시현한다. 그 중에서도 아홉 개의 머리가 달린 무시무시한 모습의 구두용왕과 온화한 십일면관음, 오키나의 호환구조는 곤과루 쟈치쿠(金春禪竹, 1405~1470?)의 사상과도 통하고 있어 주목된다.

곤과루 쟈치쿠는 그의 저서 『메이슈쿠슈(明宿集)』에서 사루가쿠(猿樂) 발생의 역사를 오키나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할 점은, 하세 사(長谷寺)를 지키는 요키 신사(興喜神社)의 신관의 노래를 인용하여 자신들을 ‘하세사루가쿠(泊瀬猿樂)’¹⁸⁾라 칭해야 한다고 하며, 하세 사의 십일면관

음을 염두에 두고, 관음보살이 서른세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변신하는 것을 오키나의 변화·변신과 같은 구조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계속해서 “오키나의 불가사의 한 작용은 관음보살의 위력과 같다”¹⁹⁾라고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키나가 변하여 나타난 또 다른 모습인 하타노 가와가츠(秦河勝)를 하세 사의 십일면관음에 오버랩 시켜 간다.²⁰⁾

『메이슈쿠슈』에 실린 전설에 따르면 하타노 가와가츠는 하세 사 부근의 산천에서 출현하였으며, 홍수라고 하는 거친 자연의 힘에 의해 떠내려 온 항아리(통) 속에서 출생한 신인데, 곤파루 젠치쿠는 오키나의 다른 모습이 하타노 가와가츠이며, 또 다른 모습이 십일면관음이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십일면관음은 주로 자비롭고 선한 이미지를 가지지만, 하세 사의 유래담에 따르면 하세 사의 십일면관음을 만든 나무인 ‘미소기(御衣木)’는 본래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는 나무였다. 즉, 홍수가 일어난 뒤 거목이 오미(近江) 미오자키(三尾崎) 지역에 표착하였는데, 이 거목은 120년 이상 동안 여러 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역병을 유행시키는 등, 재앙을 초래하였으나, 도쿠도(徳道) 스님에 의해 십일면관음으로 조각되어 안치됨으로서 미와 선의 이미지를 가진 관음으로 승화한 것이다. 부드러운 힘을 가진 하세 사의 십일면관음에는 이러한 파괴적인 힘이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십일면관음에는 부드러운 힘과 강력한 마이너스의 힘이 동화관계에 있으며, 또는 두 힘이 양면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곤파루 젠치쿠는 하세 사의 십일면관음이 오키나와 동체라고 말하였는데, 사루가쿠의 역사에 있어서의 오키나 역시 온화함과 포악한 오니의 양면성을 가진 존재이다.²¹⁾ 『타이쵸와쇼덴키』에서 십일면관음이 오키나로 전화(轉化)해 간다고 했던 것은 『메이슈쿠슈』에서의 십일면관음과 오키나, 또는 하타노 가와가츠의 관계를 정의한 곤파루 젠치쿠의 사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곤파루 젠치쿠는 『메이슈쿠슈』에서 하세사루가쿠와 하세 사의 십일면관음에 대하여 적으면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사루가쿠의 발생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18) 『明宿集』 「因縁を思えば、泊瀬猿楽と号すべきこと」(본문은 岩波思想大系 『世阿弥·禅竹』로부터 인용. 이하 동일). ‘하세(泊瀬)’는 ‘하세(長谷)’와 동일.

19) 『明宿集』 「翁の妙用、観音薩埵の威力、一体にてまします也」

20) 「この因縁によって、河勝もこの山河より出現しましけるよと、感応肝に銘ず。すなわち、ここは補陀落山として、根輪際より涌出の瑪瑙に、生身の十一面自在尊現われ給ふ」(『明宿集』)

21) 오키나(翁)의 온화한 모습과 포악한 오니(鬼)의 양면성에 대해서는 拙著 『翁信仰の生成』(思文閣, 2008) 참조.

(觀音)三十三身、三十三身を、身を合わすれば六十六番の猿樂。それを要を取り肝を拾いて三に約むれば式三番。

이상에서 곤과루 젠치쿠는 하세 사의 십일면관음을 염두에 두고, 관음의 삼십 삼가지의 모습이 합쳐져 육십 육가지의 사루가쿠가 발생했으며, 거기에서 다시 시키삼방(式三蕃)²²⁾이 성립했다고 말한다. 시키삼방은 오키나 신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오키나사루가쿠(翁猿樂)를 가리킨다. 이러한 곤과루 젠치쿠의 논리에 따르면 하세사루가쿠(泊瀬猿樂, 長谷猿樂)는 하세 사의 십일면관음을 중심으로 한 하세 지역의 산악신앙 속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능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야마토 사루가쿠(大和猿樂)의 오키나 신앙(翁信仰)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하세 사의 신앙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특히, 하세 사의 십일면관음과 오키나가 동일하다고 하는 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세의 산악신앙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십일면관음과 하타노 가와가즈, 그리고 오키나의 호환이라는 구조의 틀에서 사루가쿠가 발생했다고 하는 예능의 역사는, 타이초의 하쿠 산 신앙의 경우와도 유사하다. 에치젠사루가쿠(越前猿樂)의 성지(聖地)로서의 하쿠 산에서도 십일면관음이 중심이 되는데, 그것이 용(龍)으로 바뀌어 호환하며, 한편으로는 오키나로도 전화하는 것이다. 온화한 힘을 가진 반면에 강력한 어둠의 힘을 감추고 있는 십일면관음과 오키나는 표면상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산악신앙이 있는 곳에서 하쿠 산의 에치젠사루가쿠와 하세의 하세사루가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 구조의 공통성은 예능의 역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5. 하쿠 산(白山)의 노멘(能面)

대륙과의 교류 속에서 발달한 호쿠리쿠 문화권역에 포함된 하쿠 산에는 일본연극의 기원에 해당하는 오키나 사루가쿠(翁猿樂) 혹은 삼바소(三番叟)의 연희 기록이 적지 않다. 특히 노(能)를 연희하던 집단이 신으로서 신봉하던 오키나멘(翁面), 즉 해학적인 모습의 할아버지 가면의 유래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22) ‘시키삼바’ 라고도 함. 예부터 사루가쿠에 전해오는 제의적인 연희. 세 노인이 축하의 가무를 피로한다. 후에 한 명의 노인역할이 생략되고, 센자이(千歳)라는 동자(童子) 역할이 추가 되었다. 현재는 ‘오키나(翁)’ 혹은 ‘오키나사루가쿠(翁猿樂)’라 칭한다.

가 거의 없기 때문에, 노멘(能面)의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호쿠리쿠의 하쿠산과 에치젠 지역에 주목함으로써 그 유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쿠 산 신앙권(白山信仰圈)에 있는 사원·신사에서는 적어도 남북조 시대(南北朝時代, 1336~92) 이전부터 법회나 제례에 사루가쿠(猿樂)²³⁾를 봉납해 왔다. 그 사실은 『에치젠자문초(越知神社文書)』 『상구키(三宮記)』 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쿠 산 지역에서는 14세기 전반에는 사찰과 신사에서 제례 때 사루가쿠를 봉납하는 사루가쿠자(猿樂座)가 결성되었고, 15세기 후반에는 사찰과 신사 뿐 아니라 귀족·무사의 초대에 응해 사루가쿠를 공연하는 에치젠(越前)²⁴⁾ 사루가쿠자가 형성되어 있었다.

『간문고키(看聞御記)』 나 『만사이슈고넉키(滿濟准后日記)』 등의 문헌자료에서도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1392~1573) 초기, 에치젠 지역에 ‘에치젠 사루가쿠(越前猿樂)’라 불리는 사루가쿠 집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뿐만 아니라 노(能)를 집대성한 제아미(世阿弥)의 『사루가쿠담기(申樂談儀)』에 의하면 가마쿠라(鎌倉) 말기에서 남북조 시대에 이미 에치젠에서도 사루가쿠가 상당히 발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쿠 산의 사루가쿠자와 에치젠 사루가쿠자와의 관련은 불분명하지만, 에치젠 사루가쿠자도 하쿠 산 지역의 신사에 참근(參勤)하여 봉납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였던 사루가쿠 집단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467년 오닌 난(応仁亂) 이후부터는 야마토 사루가쿠(大和猿樂)의 집단들이 지방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1479년 곤파루자(金春座)가 에치젠에 내려오는 것을 시작으로 야마토 사루가쿠의 집단들이 모두 에치젠으로 향하고 에치 지역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야마토 사루가쿠(大和猿樂)가 에치젠(越前) 지역으로 진출한 사실을 『아사쿠라도시가게 십칠개조(朝倉敏景十七箇条)』와 같은 기록이나 남아있는 노멘(能面)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야마토 사루가쿠의 에치젠 진출에 의해 본래의 에치젠 사루가쿠자의 예풍(芸風)은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치젠 사루가쿠자는 하쿠 산의 사찰과 신사의 제례에 기반을 둔 의례의 노(能)에서 감상을 위한 예술적인 노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에치젠 사루가쿠에 대한 기록을 『사루가쿠담기(申樂談儀)』에서 살펴보면, 에치젠의 노멘 제작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일절이 눈에 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에치젠에서는 노멘 제작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에치젠

23) 노(能) 퍼포먼스의 전신.

24) 후쿠이 현(福井縣)의 동부(東部)

의 노멘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은 교토에서도 평판이 좋고, 야마토사루가쿠자(大和猿樂座)에서도 에치젠의 노멘을 애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점은 에치젠이 노인 모습의 가면인 조멘(尉面)의 일대 산지라는 사실이다. 에치젠의 노멘 제작자들은 조멘 제작에 뛰어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른 지방의 사루가쿠에 조멘을 공급하고 있었다. 『사루가쿠담기』의 내용 중 「文蔵打の本打なり」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분조(文蔵)의 조멘이 「혼멘(本面)」, 즉 조멘 양식의 모델로서 정립되어 있어, 그것을 본뜬 가면이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조멘의 양식적인 완성은 에치젠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에치젠에서의 노멘 제작의 전통은 훗날 헤센지산코보(平泉寺三光坊)나 오오노 데메(大野出目) 집안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시가와(石川), 후쿠이(福井), 기후(岐阜)의 세 현에 걸친 하쿠 산의 신사와 사원에도 노멘(能面) 계통의 가면이 다수 남아 전해지고 있다. 이들 가면은 사원·신사의 신에 대한 제례의 노(神事能)와 사루가쿠 등에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미노(美濃)의 나가타키하쿠 산 신사(長瀧白山神社)에는 엔넨(延年) 의례에서 사용된 가면 21개가 남아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쿠 산의 신에게 봉납되었던 ‘조멘(尉面)’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멘의 뒷면에는 「応安二年宗 十二月二十八日」라고 적혀 있어 나가타키하쿠산 신사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남북조시대의 오안(応安) 2년(1369)에 봉납된 노멘임을 알 수 있다. 연도가 표시된 조멘으로서는 일본 최고(最古)의 노멘이라는 점은 노의 성립과정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그 외에도 밝게 웃는 소년의 순진함이 표현된 ‘엔메이카자멘(延命冠者面)’도 남아 있으며, 조멘(尉面)과 함께 오랜 세월 엔넨 의례에서 사용되어 왔던 흔적이 역력하다.

나가타키하쿠 산 신사에 전해져 온 노멘은 현행의 노(能) 퍼포먼스에서 사용되는 노멘(能面)과는 달리 사실적이며 자유롭고, 약동감과 웃음이 표현된 개성적인 가면이다. 하지만 나가타키하쿠 산 신사의 노멘들은 현행의 ‘온나멘(女面)’이나 ‘조멘(尉面)’과 공통의 양식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루가쿠(猿樂)의 발달에 의해 제작된 노멘(能面)의 원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후쿠이 현(福井県) 에치 산(越知山)의 오오타니 사(大谷寺)에는 남북조시대에 제례의식인 시키삼방(式三番)에 사용했던 하쿠시키킨(白式尉)인 오키나멘(翁面), 고쿠시키킨(黒色尉), 지치노조(父尉)의 세 개의 가면이 전해지고 있다. 이 셋 모두 노인의 얼굴을 본뜬 것으로 특히, 오키나멘은 큰 주름이 지고 눈을 가늘게 떴으며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다.

노멘(能面)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가면은 ‘오니멘(鬼面)’과 ‘오키나(翁)계통의 가면이다. 그 중에서도 하쿠 산 신앙권(白山信仰圏)에는 오키나 계통의 특색

있는 가면들이 다수 남아 전해오고 있다. 주로 시키삼방(式三番)에서 사용했던 ‘하쿠시키쥬(白色尉)’ ‘고쿠시키쥬(黑色尉)’ ‘치치노쥬(父尉)’ 등의 가면이 그것이다. 이들 오키나(翁) 계통의 가면은 눈매가 ‘^’자 형으로 입은 반쯤 벌리고 있으며 웃는 노인의 표정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해학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에치젠의 구마노 신사(熊野神社)에서 사용되었던 오키나멘(翁面)이 노의 종가(宗家) 간제(觀世) 씨 집안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오타니사와 쿠마노 신사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제례로서의 사루가쿠가 봉납되고 있었으며, 이 때 쓰이던 오키나멘의 양식이 현행의 오키나멘과는 양식의 면에 있어서의 상이함이 눈에 띈다는 점에서, 에치젠 지역의 오키나멘이야말로 오키나멘의 성립 초기에 해당하는 고가면(古仮面)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대륙과의 문화 교섭이 활발하였던 호쿠리쿠 문화권역에 위치한 하쿠산과 하쿠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하쿠산 신앙 속에서 오키나멘의 기원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은 오키나사루가쿠의 성립과 도래문화의 관련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 오키나멘은 단순히 퍼포먼스를 위한 도구가 아닌 ‘오키나 신앙’이라고 하는 중세의 종교사상의 흐름 속에서 성립하는 신격의 가시화라 해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신(翁神)이 축연과 축하의 춤을 추는 제의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키나사루가쿠의 성립문제는 오키나 가면의 유래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쿠산의 제례의식 중에는 가장 오래된 양식을 띤 오키나멘에 의한 봉납의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오키나멘의 성립이 하쿠산 신앙의 발달과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도래문화와의 교류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했던 호쿠리쿠 문화권역에 위치한 하쿠산에서는 십일면관음과 구두용왕이 오키나로 변하여 나타나며, 일체라 일컬어진다. 이러한 오키나 신앙이 다른 어느 곳 보다도 현저했다는 것을 다수의 오키나멘의 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6. 끝내는 말

이상에서는 도래문화의 영향이 농후한 호쿠리쿠 지역과 호쿠리쿠 문화권역에 있는 하쿠산 신앙의 특징, 그리고 하쿠산의 제례의식에 포함되어 전해 내려온 고가면(古仮面)의 역사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제까지의 예능연구에 있어서 하쿠산 신앙과의 관련 속에서 노의 발생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일본연극의 기원인 오키나사루가쿠의 성립을 생각하는 데 있어 하쿠 산 신앙과 하쿠 산의 에치젠사루가쿠 문제가 정면에서 다루어 진 바도 없다. 하지만, 야마토 사루가쿠가 사용하던 오키나멘에 선행되는 가면들이 하쿠 산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 되는 만큼 오키나사루가쿠의 성립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하쿠 산 신앙과 에치젠사루가쿠의 발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쿠 산을 신의 산으로서 숭상하는 신앙은 고대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 하쿠 산에 대한 신앙은 가가(加賀)·에치젠(越前)·미노(美濃) 지역에서 성립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국각지에 2700여 곳에 달하는 하쿠 산 신사가 존재하였던 것을 보아 하쿠 산 신앙의 규모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하쿠 산 신앙의 특징으로서는 먼저 도래문화의 영향이 적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호쿠리쿠 문화의 형성과 더불어 하쿠 산 신앙이 성립하는 과정에는 ‘살우의례’나 신라의 산악신앙 등으로부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하쿠 산을 개산한 타이초의 전기에 의하면, 하쿠 산 신이 십일면관음과 구두용왕, 그리고 오키나로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하세사루가쿠와 에치젠사루가쿠, 나아가 사루가쿠의 발생을 생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중세의 노 연기자이며 이론가 였던 곤파루 젠치쿠는 하세 사의 십일면관음을 염두에 두고 관음보살이 삼십 삼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을 오키나의 변신과 같은 구조라 하며, 오키나의 불가사의 한 작용은 관음보살의 위력과 같다고 하였다. 십일면관음과 오키나는 온화한 힘을 가진 반면에 구두용왕과 같은 강력한 어둠의 힘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십일면관음과 오키나 신앙이 있는 곳에서 사루가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예능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하쿠 산 지역에는 하쿠 산 신앙 성립 초기부터 오키나(翁) 혹은 시키삼방(式三番)이라 불리는 예능이 봉납되어 왔는데, 이 때 사용되던 오키나멘은 시기적으로나 양식 면에서나 노의 오키나멘에 선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키나멘을 중심으로 한 고가면의 존재는 하쿠 산 지역에 있어서 오키나 신앙이 현저했다는 사실과, 하쿠 산 신앙의 성립과 사루가쿠의 발생이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参考文献】

- 網野吉彦他編(1990)『海と列島文化—日本海と北国文化』小学館
松田智弘(1999)『古代日本の道教受容と仙人』岩田書院
重松明久(1985)『古代国家と道教』吉川弘文館
下出積興編(1985)『白山信仰』雄山閣
桜井徳太郎編(1983)『地藏信仰』雄山閣
桜井徳太郎編(1987)『山岳宗教と民間信仰の研究』名著出版
五来重(1986)『修験道の伝承文化』名著出版
和歌森太郎(1987)『山岳宗教の成立と展開』名著出版
高瀬重雄(1986)『白山・立山と北陸修験道』名著出版
五来重編(1985)『修験道史料編』名著出版
土谷恵(2001)『中世寺院の社会と芸能』吉川弘文館
桜井好朗(1986)『中世日本文化の形成』東京大学出版会
景山春樹(1978)『神像』法政大学出版局
前田速夫(2006)『白の民俗学へ』河出書房新社
桜井好朗(1985)『神と仏』春秋社
桜井徳太郎(1987)『東アジアの民族宗教』吉川弘文館
本郷真紹(2001)『白山信仰の源流』法蔵館
浅香年木(1988)『中世北陸の社会と信仰』法政大学出版局
川村湊(2007)『牛頭天王と蘇民所来』作品社
鈴木英夫(1985)「殺牛儀礼と渡来人」『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角川書店
中野幡能(2000)「英彦山の歴史」『英彦山と九州の修験道』名著出版

要 旨

本稿では、渡来文化の影響が濃厚な北陸や北陸文化圏にある白山の信仰の特徴、白山の祭礼に含まれて伝えられた古面の歴史について調べた。今まで、日本演劇の起源とも言える翁猿楽の成立問題においては、白山信仰や白山の越前猿楽は正面から取り上げられることがなかった。しかし、大和猿楽が用いた翁面に先行する面が白山地域において確認されることから、翁猿楽の成立を論じる場合には白山信仰と越前猿楽のことを看過す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

白山を神の山として崇拝する信仰は、古代から存在していた。白山に対する信仰は、加賀・越前・美濃の三地域で成立してから全国に広まった。全国に2700余りの白山神社が存在することから、白山信仰の規模の大きさがわかる。本稿で調べた白山信仰の特徴としては、まず、渡来文化の影響が少なくないことがあげられる。北陸文化の形成と共に白山信仰が成立する過程には、‘殺牛儀礼’や新羅の山岳信仰などからの影響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また、白山を開山した泰澄の伝記によると、白山の神が十一面観音と九頭竜王、そして、翁としてあらわれる。これは、長谷猿楽と越前猿楽、ひいては猿楽の発生を考える際に、とても重要な要素である。金春禅竹は、長谷寺の十一面観音を念頭において、観音が三十三の身に变身することが、翁の变身と同じ構造であるとし、翁の不思議な妙用は観音の威力と同じだという。十一面観音と翁は、穏和な力を持っている反面、九頭竜王のような強力な闇の力を持っていることを説いているのである。このような十一面観音と翁の信仰があるところで、猿楽が発生してきたということは、芸能の歴史をのべるときに、必ず注目すべき部分である。

一方、白山地域には、白山信仰成立初期から翁、または、式三番と呼ばれる芸能が奉納されてきたが、この時に用いられた翁面は、時期的にも様式的にも能の翁面に先行されるという点で注目される。翁面を中心とした古面の存在は、白山地域において翁信仰が顕著だったという事実と、白山信仰の成立と猿楽の発生が深く関わっていることを示唆す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白山信仰、修験道、北陸、十一面観音、翁猿楽、翁面、渡来文化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1. 3. 19

2차 심사 : 2011. 4. 2